

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추민호	영 문	Chu Minho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VG TU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해군을 다녀와 23개월을 보내고 바로 복학을 하여 한 동아리를 2년 동안 이끌며 4학년 1학기에 많이 지치고 색다른 경험을 갈망하다가 발견한 공지를 보고 신청하였습니다.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흔히 말하는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절대 후회되지 않는 경험입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서류준비 》 항상 휴대폰에 이메일 어플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으세요. 모든 서류들이 이메일을 통해 오고갑니다. 학교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으며 선 제출 서류에 있는 수강신청은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오티 주 이후에 3주간의 수강 정정기간이 있기에 그때 수정하세요. 그 주 전까지는 실제 시간표도 모릅니다.

《 비자발급 》 비자 발급소는 빌뉴스에 두곳이 있으며 학교에서 먼 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발급을 위해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내어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전 교환학생에게 리투아니아어 번역이 필요하다 들었는데 영문서류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신청 후 서류가 부실하거나 하면 이메일로 재제출을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 항공권 구입 》 항공권은 이룰수록 싸며 한국에서 국제학생증을 만들어 키세스 항공사를 이용하며 되도록 LOT를 이용하세요. 가장 쌉니다. (바르샤아-인천 27만원에 왔습니다. 유스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표는 한달전에 구매하였습니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위에 작성하였습니다. 오티 주간은 되어야 언제 수업이 있는지 나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정기간이 3주나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저 수업 들어보며 결정하시고 VG TU는 강의마다 격주로 강의가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 기숙사 》 한달에 150 유로로 빌뉴스 대학들 기숙사 중 가장 비싸지만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1방 혹은 2방에 공용주방. 방마다 샤워부스가 딸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타 대학 기숙사는 50-80유로이지만 한 층 공용 주방과 화장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매달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제출합니다. 차후 학기 말에 기숙사를 뺄 때는 미리 공지가 됩니다. 조기 퇴사자들은 언제까지 출국날짜를 알려달라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때 보증금 환급 서류와 퇴사 프로세스서류를 발급해줍니다. 보증금은 2주 내로 계좌로 받으며 수수료는 5-6만원 정도입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 VG TU 》

일단 빌뉴스에는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ISM VU VGTU MRU LCC 모두 한국인 교환학생이 있으며 빌뉴스 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 중 공과대학이 VGTU입니다. VU와 학교가 가까우며 몇몇 VU 기숙사는 VGTU 기숙사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국의 캠퍼스 개념과는 다르게 도시 전체에 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미역에 금오공대 디지털관이 인동에 테크노관이 있는 듯이 말이죠. 차후 수강신청 시 잘 보고 신청하세요. VGTU 만의 장점은 아니고 유럽 대학의 장점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멘토를 만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공항에서 학교까지 교통 》

택시 타세요. etaksi taxify? 이 두 어플이 유용합니다. 가격은 6-7유로면 갑니다. 버스로도 갈 수 있지만 버스 요금은 0.5유로 (1유로지만 학생증 보여주면 할인됩니다.) 이지만 2번을 타야하며 1시간이 걸립니다. Trafi 라는 대중교통 (그래봐야 버스 밖에 없습니다...) 이 잘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5.8유로 (학생요금 학생증 필)에 한달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 강의 》

강의는 대개 무난합니다. 다만 교수님들의 필기체와 항상 배우던 미국식 발음이 아니고 영국식 발음에 그들 특유의 어투가 묻어나 처음에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 수강과목 : 사진 》

한국에서 졸업학점 140학점 중 138학점을 채웠기에 전공을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에 들었습니다. 색다른 강의였고 과제 겸 시험이 빌뉴스 사진 5장, 종이를 활용한 사진 10장, 나 자신을 표현한 사진 5장 등. 색다른 과제와 수업이었습니다.

《 수강과목 : 리투아니아어1 》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들으면 영어가 가장 쉬운 외국어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릅니다. 형식 시제에 따라 동사가 아닌 명사가 변화하며 단수 복수 변형까지 합하면 50가지나 됩니다. 물론 1과정에서는 그 과정은 시험 시에 변환표로 a4에 줍니다. 다만 이를 이해함에 있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 수강과목 : 체육 》

출석 10회이상을 채우면 일단 pass입니다. 기숙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체육관이 있으며 헬스 이외에 코어 탁구 등의 과정이 있으며 이 수업은 오티에서 알려줍니다. 작년에 비해 인정학점이 낮아졌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 기숙사 》

많은 내용을 위에서 서술했습니다. 기숙사는 솔레테키오 39a에 배정이 되었으며 39이하의 숫자들은 VU 학생들이 거주합니다.

《 생활비 》

기숙사비 포함 한달에 50만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방이 방에 바로 붙어있어 요리하기 쉬웠고 대체로 식재료 물가가 저렴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 프로그램 》

VGTU 주치가 아니라 ESN 이라는 유럽 교환학생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대표적으로 씨사이드 트립 (리투아니아의 바다 클라이페다로 가는 2박의 여행입니다.) 오로라헌팅 등등의 행사를 주최합니다. 외국인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이러한 행사들에 참가해보세요.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 문화적차이 》

일단 한국이 많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 행사에서 성적인 묘사를 하며 웃는 것을 보면서 아시아계 쪽 교환학생 친구들은 조금 참가를 꺼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이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다. 라는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연들을 만났으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고 피부로 느끼며 한국에서 항상 행하던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숨을 쉴수록 공기의 유무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끼고 되돌아보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는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더 넓은 세계를 본다. 이보다 더 알맞은 말도 없을 것입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몰랐을 일입니다. 여행이 아닌 삶. 색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예쁘고 색다른 것을 보러 다니는 행위였지만 색다른 곳에서의 삶은 나에게 색다른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군가 고민한다면 정말 진심을 다해 추천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시간은 한국에서 잠깐 취업 졸업을 6개월을 늦게하는 것의 몇 배는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교환학생을 가려는 혹은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카톡아이디 adminh 또는 turbulence528@gmail.com로 연락주세요.